

“스포츠마케팅으로 생활인구 유입” 겨울에도 해남은 훈풍

땅끝 해남이 온화한 기온과 맛깔스런 음식 등 천혜의 자원과 차별화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에 나섰다. 장단기 외부 인구유입을 위한 생활인구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전략의 하나로 주목 받으면서 스포츠마케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올해 전국 단위 등 70여개 종목의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해남군에서는 2024~2025 동계전지훈련 기간 12종목 210개팀 3000여 명의 선수와 연인원 3만 여명의 생활인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광 비수기인 동계기간 스포츠마케팅은 지역경제에도 훈풍이 불어 넣었다. 숙박업소와 식당, 지역상가 등에 활기를 더하며 30여 억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 대형 스포츠대회가 열리거나 동계훈련기간이 되면 인근의 음식점은 물론 빵집과 치킨, 피자집, 마트 등도 연일 물려드는 손님에 즐거운 비명이다. 특히 해남읍내에 숙박을 예약하지 못한 선수들은 인근 면단위 숙박업소에 머물면서 관광 비수기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삼산면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박 모씨는 “전지훈련 선수단은 가문의 단비처럼 반겨준 손님”이라면서 “굴뚝없는 청정 산업이라는 스포츠마케팅이 비수기 지역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효자나 다름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해남이 동계전지 훈련지로 각광받는 데는 따뜻한 날씨와 맛깔스런 음식, 무엇보다 적극적인 시설 확충과 수년간 쌓아온 스포츠마케팅 노하우가 한몫하고 있다. 해남군이 스포츠마케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1990년대 후반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지훈련을 실시하던 육상팀의 일부를 해남에 유치하면서부터이다.



2024~2025년 동계전지훈련 기간 3만여명 찾아 식당·숙박업소 등 ‘복적 복적’… 파급효과 30억원 인프라 확충·전문 트레이너 배치 등 지원 주효

지난 2007년에는 스포츠마케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국대회와 전지훈련을 동시에 추진하는 스포츠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 인프라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 기존 우슬경기장과 체육관 외에도 3면의 축구전용구장과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갖춘 우슬체육공원을 비롯해 테니스장, 수영장, 다목적생활체육관, 펜싱체육관, 우슬트레이닝센터와 현대식 6레인의 전천후 육상 실내 경기장 등을 차례로 확충했다. 선수들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훈련 장비를 육상 트레이닝센터에 비치해 윈스톱 훈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적인 육상 지도자로 알려진 일본 주니어 대표팀 전문지도자인 고마즈다카시를 초빙해 육상 후보선수단의 기술 지도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전지훈련 기간 운영되는 재활캠프는 전문 트레이너 6명이 상주해 수준 높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즌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체력 향상과 재활 훈련을 통한 기량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활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훈련뿐만 아니라 관광지 관람, 고구마 빵 만들기, 장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 등 해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스포 투어(spo-tour) 프로그램은 훈련의 긴장을 풀어주며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벌써 3년째 해남을 동계전지훈련지로 택하고 있는 김수연 육상도약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감독은 “따뜻한 날씨와 적재적소에 잘 갖춰진 훈련시설, 세심하게 선수들을 배려해주는 군의 탄탄한 지원, 지역민들의 인심이 있어 매년 땅끝해남을 찾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스포츠마케팅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청정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까지 제2스포츠타운인 해남스포츠파크와 복합체육문화센터, 구교리체육관 등이 완공할 계획”이라면서 “시설들이 완공되면 현재의 2배 정도 인원까지 수용이 가능해 스포츠마케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남군 제공

광주 세계양궁대회 결승전, 역대 최장 열린다

9월 7~12일 6일간 5·18민주광장서… 결승전 통상 3일 진행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 결승전도 9월 27~28일 이틀간 열려
각국 선수단 예비엔트리 등록 열기 뜨거워… 흥행 돌풍 예고

오는 9월 광주 곳곳을 양궁의 뜨거운 열기로 물들일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결승전이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6일간 펼쳐진다.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결승전 경기를 오는 9월 7일부터 12일까지 5·18민주광장에서 6일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 경기는 통상 3일간 진행됐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1931년 대회 창설 이래 처음으로 6일간 일정으로 확대했다. 역대 최장 규모의 결승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조직위원회는 결승 일정을 늘린 배경에 대해 “광주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회를 더 오랜 기간 즐기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도 오는 9월 27일부터 이틀간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광주시민과 전 세계 양궁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환희를 선사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평화의 상징인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되는 결승 경기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인터넷 실시간 생중계 방란도 강구 중이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 세계에 문화·역사·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축제로 만들 방침이다. 대회 참가 열기는 벌써부터 뜨겁다. 예비 엔트리 등록 시작 불과 5일만에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27개국 335명의 선수와 임원(팀매니저·코치·의료인력 등)이,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12개국 132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 신청했다. 세계 양궁인들의 관심이 광주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전 세계 최정상급 양궁 선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전통과 권위를 지닌 국제대회다. 국제스포츠 도시 광주시 입지를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수 기자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에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GS건설 (주)한화/건설 HDC엔지니어링

062) 607-8338

김도영·박찬호·김선빈 등 핵심선수 부상 속출… 속타는 KIA

이번 시즌 통합 우승 2연패를 노리는 KIA 타이거즈는 정규시즌 초반부터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구상이 완전히 꼬였다. 이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다른 선수들의 활약에 기대며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KIA 선발 라인업에는 지난 시즌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김도영과 지난해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박찬호, 베테랑 2루수 김선빈이 모두 없다. 이들은 시즌 초반부터 차례로 부상을 입었다. 김도영은 개막전부터 부상을 당하는 불운을 겪었다. 지난달 22일 광주 NC 다이노스전에서 안타를 친 후 왼쪽 허벅지에 통증을 느꼈다. 그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진 결과 햄스트링 손상(그레이드 1) 진단을 받았다. 다음 주 재검진을 받은 뒤 복귀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박찬호는 지난달 25일 광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2루 도루를 시도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쳤고, 병원 정밀 검진에서 타박에 의한 염좌 소견을 받았다. 심지어 KIA는 김선빈마저 부상을 당하면서 내야진에 초비상이 걸렸다. 시즌 개막 후 6경기에서 타율 0.435

김도영 햄스트링·박찬호 무릎·김선빈 종아리 부상

주축들 빠진 공백 뼈저리게 실감… 3승 6패·공동 8위



25일 오후 광주 북구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KIA박찬호가 1회말 2루로 향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뉴시스

로 패조의 타격감을 자랑했던 김선빈은 지난달 28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왼쪽 종아리에 통증을 호소해 6회 교체됐다. 김선빈은 병원 검진 결과 왼쪽 종아리 내측 미세 손상 진단을 받았다. 심각한 부상은 피했지만, 경기에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김선빈은 지난달 29일과 30일 한화전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고, 2경기 모두 대타로 출격했으나 수비에 나서진 못했다.

다. 2일 광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도 대타로 한 타석만 소화했다. 부상자들을 대신해 변우혁과 서건창, 김규성, 최정용 등이 경기에서 나름대로 제 몫을 해주고 있으나 주전들의 빈 자리는 너무나 크다. 핵심 선수들이 줄줄이 빠진 KIA는 9경기 3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공동 8위까지 추락하며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구겼다. /뉴시스

강진군, 지역경제도 스매시! 스포츠와 반값 만나 윈윈

강진청자배 배드민턴대회 성료, 대회 경제효과 5억 6천만원

‘2025 제19회 강진청자배 배드민턴 대회’가 지난달 3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모여 실력을 겨뤘다. 이번 대회로 인해 강진군은 생활체육인 배드민턴 저변 확대와 스포츠메카 강진의 이미지를 확실히 다졌다.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연맹대, 급수별로 나누어 총 100여 명의 선수가 수상했다.

또한 2,970여 명(선수 2,500명, 관계자 470명)의 인원이 참가해 이번 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5억 6천만 원이다. 경기차 강진을 찾은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강진반값여행 혜택을 톡톡히 누리며 대회기간 중 관내 숙박시설, 음식점, 카페 등은 인산인해를 이루어 관내 상가를 들쭉이게 했다. 대회에 참가한 한 선수는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한 이런 큰 대회를 후원해준 강

진군에 감사하고, 덕분에 평소 갖고있던 실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었다.”며 “대회도 즐기고, 강진의 반값여행 혜택도 너무 잘 돼있어서, 경기도 즐기고 강진군의 관광지도 제대로 여행할 수 있었다. 주변인들에게도 돌아가 반값여행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다가오는 5월에도 전국단위 배드민턴 대회 추진을 통해 강진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반값정책과 연계해 참가자들이 부담 없이 대회를 즐기고, 강진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